발달장애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 전문기관

서울시 발달장애 사회적응 지원센터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희망 세상을 열어갑니다.

서울시 발달장애 사회적응 지원센터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226 (마천2동 28-1)
TEL 02.448.3302 FAX 02.448.6022

미션·비젼·목표

미 션

발달장애 유아, 아동, 청소년의
자립능력 강화에 기여한다

비 전

발달장애 유아, 아동,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선도하는 대표기관

운영목표

발달장애 유아, 아동, 청소년의 자립능력
강화를 통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교육목표



Index

3 [시설장 인사말]
무엇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가/추석호 센터장
4 [2016년 하반기 사업 현황]
사회적응운동
자립생활지원
재활심리치료
17 [지역사회네트워크 사업]
체험여행, 현장실습지도, 음악교실, 자원봉사
20 [공모사업]
20 [후원사업]
21 [직원교육, 직원워크샵, 운영위원회의]
22 [Essay]
등잔 밑이 밝다 /이영덕(이하윤어머니)
함께한 시간들/손승연(교사)
24 [자원봉사 이야기]
고등학생 봉사자 경정원
고등학생 봉사자 박지민
고등학생 봉사자 김수연
27 [2016년 사업실적]
30 [장애유형별 이용자현황]
31 [거주지별 이용자현황]
32 [2016년 2차 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35 [2016년 운영 결산 내역]
36 [꿈에그린 도서관 소식]
38 [장애인 친구이해하기]

童歌동가

아이들웃음소리 **2016 겨울 통권 7호**

제 7 호 발행 2017년 2월 1일
발 행 처 서울시 발달장애 사회적응 지원센터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226(마천2동 28-1) Tel.02-448-3302
발 행 인 추석호
편 집 인 홍완기
자료정리 주민성, 이정순, 소연자, 강은주, 손승연, 김태용, 이원민, 김우리
편집/인쇄 주식회사 디자인커뮤니케이션 1588-4654 www.toprint.co.kr

무엇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가?



그것은 믿음과 희망입니다.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 인생이 살만한 것으로 느껴질까?

만족과 내적평안의 기본조건은 바로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입니다.

과도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다 나은 마음의 평정과 정신적인 건강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행복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실망, 좌절, 가정문제 및 재정적 문제로 인한 인생의 길에서 점점 소외되어 다른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랑을 실천한다 해도 당사자와 가족의 아픔과 눈물을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장애로 오는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함께 지고 가야하는 눈물겨운 삶을 의미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위로 받으십시오.
모든 가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가족에게는 절절한 아픔을 위로하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희망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울시 발달장애 사회적응 지원센터장 **추 석 호**

2016년 하반기 사업 현황

사회적응운동 프로그램

2016년도 하반기 사회적응운동 활동 사진입니다~^^
점점 변화하며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의 활동하는 모습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사회적응운동 4단계 외부활동 수영

사회적응운동 4단계 친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영장 가는 날!!
친구들과 물장난도 치고 그동안 숨겨왔던 수영 실력도 봄내며 즐겁게 놀다 왔답니다.
뚝섬유원지 수영장에서 간식으로 먹은 통 감자는 최고~





사회적응운동 4단계 외부활동 치어리딩

우리는 CHEERLEADER입니다!
처음 해보는 치어리딩도 멋지게 소화해서 무대에 오른 친구들 멋지죠?








사회적응운동
5단계 외부활동
축구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하계대회 참가

제 12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하계대회
기간 : 2016.08.23.(화)~08.25(목)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스페셜 올림픽에 친구들과 출전했어요.
무더운 날씨였지만 그동안 배웠던 축구를 마음껏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 2조 2등을 했습니다.







사회적응운동
5단계 외부활동
축구교실

매주 토요일 친구들과 재미있게 축구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공과 많이 친해지고 시합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 같이 축구 하면서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도자기/
플라워아트
공예**

자립생활지원 초등반, 중등반에서는 11월~12월 공예 프로그램으로
도자기, 플라워아트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걱정했던 부분들이 찰흙을
만지는 순간 자유롭게, 열심히 만드는 모습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궁금한 것은 질문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가며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집중해서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와 관심을 가지고 지도에 임했습니다.
틀에 박힌 작품보다는 자기만의 개성있는 작품을
만들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는
것이 싫어하는 친구, 손가락의 힘이 부족해 잘
안되는 친구도 있었지만 끝까지 해보려는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도자기로 완성되어 집에 가져가서
우유나 물을 담아 먹을 생각에 즐거워하는 활기찬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 도자기공예 강사 최선주

아이들이 식물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감정을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같은 식물을 보고도 다르게 느껴지는 감정들에
주의해서 진행했습니다.
더 자세히 느끼는 아이도 있고, 비중있게 다가온
대상만 습득하는 아이도 있는데 기억력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정서적 감성을
가중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플라워아트 강사 송영란











서울도시철도 지하철스탬프 투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가 주최하는 지하철스탬프투어!
7~8월 아이들이 좋아하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의 명소를 방문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뜨거웠던 지난 여름,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Seoul Metro

5678 행복미소 서울도시철도
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Corporation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추억이 방울방울,
어린이대공원과 젊음의거리



5호선 서대문역

근현대사의 기억
경찰박물관 ⟶ 경교장



1호선 종각역

독립운동, 그 현장을가보다
보신각 ⟶ 청계천 갤러리



4호선 혜화역

서울구경, 고궁나들이
창경궁



5호선 광화문역

근현대사의 기억
서울역사박물관



3호선 경복궁역

서울구경 고궁나들이
경복궁



6호선 녹사평역

서울속의 세계 이태원
경리단길 ⟶해방촌예술마을



5호선 강동역

푸근한 골목 이야기
강풀만화거리



4호선 이촌역

전시관에서 역사, 문화,예술을
국립중앙박물관



1호선 서울역

도심 속 과거와 현재 공존여행
문화역 서울284



8호선 몽촌토성역

역사유적과 둘레길
한성백제 박물관



4호선 회현역

숭례문





완주기념으로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가장 행복한 선물은 "추억" 이겠지요?





지하철 투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를 그린 것입니다.



꿈꾸는 아이들의 사진이야기

2016년 '다름을 넘어, 이해로-발달장애 아이들 눈에 비친 세상' 사진전이 개최되었습니다. 사진창의예술교육에 참여하며 촬영한 사진 가운데 아이들의 성향과 관심이 잘 나타나는 작품과 펜라이팅, 포토그램, 사진이미지 읽기, 스튜디오 촬영 등 활동 내용을 볼 수 있는 스케치 사진도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오픈식에서는 사진전에 참여한 아이들이 작품을 소개하고 가족, 관계자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이미 사진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것을 또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시장에 걸린 '내 작품'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응원을 받으며 설명하는 경험은, 아이들의 성취감과 자긍심을 위한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전시를 보신 후 부모님들께서 사진으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어른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보는 아이들의 작품을 보며 새롭고 멋진 경험을 했다는 분, 이번 전시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될지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 이제까지 아이의 눈높이에서 보지 못하고 "안돼!", "하지마!" 란 말을 너무 많이 한 건 아닌가,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겠다는 분 등등 따뜻한 소감을 나눠주셨습니다.

제 1회

- 일시: 2016.01.16~22 / 01.22~31
- 장소: 송파도서관 다솜갤러리 / 5호선 개롱역
- 참여작가: 8명(박수빈, 박현우, 예승재, 유하늘, 윤승수, 이민엽, 장훈, 정경구)
- 관람인원: 344명






제 2회

- 일시: 2016.07.22~29
- 장소: 송파도서관 다솜갤러리
- 참여작가: 12명 (김민건, 박수빈, 박현우, 예승재, 유하늘, 윤승수, 윤정원, 이민엽, 이승준, 임세헌, 장훈, 정경구)
- 관람인원: 56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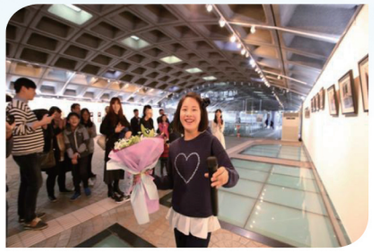
방명록(따뜻한 응원메시지)

+ 사진을 찍으면서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신선하네요~
  사진에 그것들이 다 나타나 있는 것 같아서 저까지 기쁠이 좋았어요!!
+ 축하해!! 축하해요!
+ 많은 자유롭게 표현하길 바라~
+ 특별한 사진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언니 오빠들 멋진사진 기대할게!
+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의 시선을 응원합니다. 사랑받으길 화이팅♡
+ 너희들은 이미작가. 세상을 아름답게 꿈꾸기를♡
+ 불가능 할것이라는 어른들의 생각을 멋지게 만든 너희들의 꿈! 너희들의 즐기있는 도전을 응원한다~! 파이팅!!
+ 아이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화이팅!
+ 감동적이에요~ 정말 멋진 사진이에요. 짝!
+ 멋있게 잘 표현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힘냅시다!
+ 순수하고 진실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아이들의 따뜻함을 느끼고 갑니다~
+ 사진 속 아이들의 세상이 너무 자유롭게 보입니다! 화이팅!+아름다운 마음으로 멋사한 사진들 참 아름답다!

제 3회

- 일시: 2016.11.29~30
- 장소: 서울 메트로미술관
- 참여작가: 7명(김재원, 박세영, 우예준, 이건호, 정예원, 지연우, 최윤서)
- 오픈식 참석 인원: 39명




사진이 좋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의 사진이 좋아서 시작한 인연.
발달장애 아이들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호사를 누렸습니다.
낯가림이 심했던 아이가 간지럽히면서 장난을 쳐 올 때,
수줍음에 눈도 못 맞추던 아이가 신나서 웃는 걸 볼 때,
무엇보다 아이들이 찍은 사진을 볼 때 잊고 있던 '행운'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가식과 허영이 덕지덕지 붙은 피로한 이미지들을 보다 군더더기 하나 없이 말끔한 아이들의 사진을 보니 눈이 정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진창의예술교육'은 사진 매체를 통해 이미지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수업이라 하면 잘 찍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카메라 작동법 외에는 별다른 카메라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찍고 싶은 것을 찍게 하는데 비중을 두고 아이들과 시선을 맞춥니다.

아이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정말로 멋진 전시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작품 앞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중얼대며 연습하는 아이들과 대견해하시는 부모님들을 보며, 사진전이 아이들과 부모님들께는 사진전 이상의 의미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데 서툴지만 네가 무얼 보고 있는지 내가 봐 줄게.
말로는 전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눈으로 읽어줄게."
하나의 획도 더할 필요 없이 이미 충분하고 완전한 아이들 사진을 보며,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며 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볼 수 있기를,
한계와 제약없이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사진창의예술교육 강사 프로젝트룸 강신효, 김시현

2016 제16회 한성백제문화제 사진공모전

지난 10월 6일~7일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개막식을 관람하고 체험 부스를 다니면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문화제에 다녀 온 후 〈한성백제문화제 사진공모전〉 에 제출할 사진을 아이들이 직접 선정하고 작품설명을 적어보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송파구청으로 가서 방문접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은상 1명, 동상 1명, 장려상 15명 총 17명의 작품이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송파구청으로부터 상금과 상장, 기념품을 받았습니다.








은상 〈소명천-관아체험〉
윤 정 원



동상 〈칼싸움하는 병영체험〉
김 민 건

2016 제24회 부스러기사랑나눔회 글그림잔치

지난 5월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서 주최한 글그림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가족사랑에 대한 아이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었는지 수상의 기쁨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총 2,555편 제출작 중 149편 수상되었습니다.
그 중 우리 아이들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장려상-더불어함께상
〈로마에 온 우리가족〉
박수빈



본상-상상력이 높은상 〈사랑, 행복, 웃음이 가득한 집〉
김재원, 박세영, 우예준, 염우진,
이건호, 정예원, 지연우, 최윤서





11월 18일~20일 천호역 지하보도 '오르락 내리락' 에서 수상작품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시된 작품을 보며 이야기나누고 작품 앞에서 기념사진도 찍었어요~

재활심리치료

외부활동 NO. 1 정서이완 프로그램 "왁스타블렛" 만들기

•진행기간 : 2016년 12월 19일(금)
•참가인원: 재활심리치료 이용자 4명

화나고 짜증나며 늘 불안하던 우리 친구들에게 왁스를 만져보고 색을 섞어가며 멋진 작품으로 완성된 나만의 "왁스타블렛"을 보고 정서적으로 안정감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너무나 뿌듯해하고 즐거워 하는 우리 친구들. 다음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나만의 감정, 나만의 색을 표현해보자구.^^








외부활동 NO. 2 영화관람 마이리틀자이언트

•진행기간 : 2016년 8월 12일(금)
•참가인원: 재활심리치료 이용자 6명

[마이리틀 자이언트]는 외롭게 고아원에서 지내는 한 소녀와 거인 세계에 사는 거인아저씨와의 우정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해줌으로써 진정한 친구로 거듭나는 영화 속 이야기를 통해 우리 친구들도 꼭 거인아저씨와 같은 소중한 친구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재미있게 관람했답니다~




부모멘토링 프로그램

장애아동 형제자매를 위한 가족이 함께 하는 Play Time

•진행기간 : 2016년 9월 26일(월)
•참가인원: 부모 6명(상반기참가자)





발달장애 아이들의 놀이 특징

반응의 정도나 어떤 관계를 시작하는 정도가 낮고 다른 아이들에게 주의를 덜 주는 특성을 보임
모방행동을 잘 하지 않고 상징놀이보다는 반복적인 의미 없는 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음

놀이는 왜 필요한가?

또래와 관계를 맺는 수단
▶ 적절한 놀이 기술을 가르쳐 줌으로써 또래 관계와 사회적 의사 소통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

놀이의 단계

혼자 놀이

병행 놀이 같은 공간에서 또래들과 비슷한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만, 친구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음

연합 놀이 같이 어울려서 놀지만 완전한 체계의 놀이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놀이로 어울려 노는 것

협동 놀이 일정한 목적이 정해져 있고 역할이 분담, 행동이 조직적이고 체계화 되어 있음

어떻게 놀아야 하는가?

맞추기 게임
- 방향, 힘을 조절하는 놀이
-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

예) 바둑알 떨어뜨리기, 고리 던지기, 당나귀 꼬리 달기

경주 게임
- 협동하기, 탈 중심화가 중요
- 똑같은 행동이 여러 번 반복되는 놀이

예) 다리 묶고 달리기, 의자 뺏기, 물풍선 나르기

술래잡기 예) 술래잡기, 얼음 땡, 손수건 돌리기, 꼬리 자르기

숨기기 게임
- 탈 중심화 연습

예) 숨바꼭질, 보물찾기

알아맞히기 게임
- 만지고, 듣고, 보고, 언어적 힌트로 알아맞히기

예) 비밀 주머니, 범인 찾기 게임, 다섯고개

언어적 지시 게임 예) 가라사대, 청개구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알아맞히기 게임
- 비슷하거나 똑같은 것 찾기
- 어떤 카드가 더 많은지 비교하기
- 순서대로 배열하기
- 같은 종류 모으기

예) 기억 게임, 카드 도미노, 할리갈리, 우노, 유희왕 카드놀이

보드게임
- 일정한 길을 따라 말을 움직이는 게임
- 물건 모으기

예) 스머프 사다리, 흔들흔들 해적선

"부모는 교육자가 아닌 양육자 입니다."

성교육 프로그램 4탄

소중한 나 내가 지켜요.

- 날짜 : 2016년 11월 28일 ~ 12월 26일
- 시간 : 매주 월요일 16:00 ~ 17:00(중등)
  17:00 ~ 18:00(초등)
- 회기 : 총 5회기

이번 성교육은 단기적 접근을 통해 지속성 있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5회기로 이루어진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친구들에게는 성장에 따른 신체 변화와 생명의 탄생 과정,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중학생 이상 친구들에게는 생식기 위생관리와 자위행위 처리법, 데이트와 임신에 대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설명하면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업 후 성교육 선생님과 부모님들의 상담시간을 통해 가정에서 지도해 줄 수 있는 방향도 설명드릴 수 있어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성교육 수업을 많이 듣고 있었지만 자신의 행동이나 언어 중에 어떠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감정과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 몰라 감정카드와 그림카드를 참고하여 찾아가도록 하여 숨겨왔던 감정들이 발현되어 말하지 못했던 불쾌한 감정들을 말하며 표현하는 학생도 있었고, 중학생의 경우 자위행위와 데이트와 관련해 어디서도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솔직히 나누며 앞으로의 행동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출처] 서울시 발달장애 사회적응 지원센터 발달장애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_ 박수진 강사
작성자 한국자아교육개발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사업

체험여행

체험여행은 장애아동에게는 오감능력 향상과 사회성향상을 목적으로,
가족에게는 스트레스 해소, 형제애 및 가족애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지원사업입니다.

- 장소 : 경기도 양주 외갓집체험마을
- 행사일 : 2016년 10월 12일(토)
- 참가인원 : 37명
- 체험프로그램 :인절미떡매치기, 감자전만들기, 고구마캐기, 타작마당, 송어잡기








음악교실

지난 12월 11일 마천세계로교회에서는 아주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음악교실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만의 몸짓과 언어로 감동을 나눴습니다.





동요 '내가 바라는 세상'을 부르는 아이들은 한 소절 한 소절 열심히 불렀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이 날을 위해 아이들은 3월부터 음악교실에서 발성, 가사 외우기, 화음, 안무 동작 익히기 등 기량을 갈고 닦았습니다.
랩이 가미된 합창, 난타공연,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부른 노래 공연이 펼쳐질 때마다 뜨거운 박수가 터졌습니다.
마지막곡으로 다함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르며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노래로 화답하고,
빨간 장미꽃을 선사하며 꼬옥 안아주었습니다.

현장실습지도



사회복지 현장실습 김상현
16.07.11.~08.12.(16회기, 128시간)

특수체육 현장실습 정철준
16.06.27.~07.15.(15회기, 120시간)

특수체육 현장실습 박준규
16.07.18.~08.12.(15회기, 120시간)

자원봉사

등록 자원봉사자 수 : 246명 (2016년 신규등록 27명)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 인원
인원	47	23	11	10	8	5	30	15	7	8	9	3	176










자원봉사 활동 안내

Q1. 자원봉사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1.송파자원봉사센터(1365) 회원가입 합니다 ▶ 2.요일 및 시간을 협의하시고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

Q2. 자원봉사자는 센터에서 무엇을 하나요?

센터에서 진행하는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의 활동 보조를 합니다.

Q3. 자원봉사자 자격 사항이 있나요?

1.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는 분
2. 주1회, 최소 4회 이상 가능 하신 분
3. 청소년(고등학생이상) 자원봉사자의 경우 방학 중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고등학생자원봉사자
박 지 민



고등학생자원봉사자
서 지 호



고등학생자원봉사자
김 수 연



고등학생자원봉사자
오 민 혜

언니 오빠 형 누나
친구같은

청소년
자원봉사자



고등학생자원봉사자
경 정 원



고등학생자원봉사자
백 종 민



졸업생자원봉사자
박 현 우



졸업생자원봉사자
손 창 오

공모사업

플라워아트

•사 업 명 :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6 저소득시민지원사업
•프로그램 : 발달장애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플라워아트
•운영기간 : 2016.08.20.(토)~11.05(토), 10회기
•운영시간 : 토요일, 10:00~12:00
•인　　원 : 발달장애 부모 10명





후원사업

발달장애 청소년 SC농구단

•프로그램 : 발달장애 청소년 SC농구단
•운영기간 : 2016.07.09.(토)~12.17(토)
•운영시간 : 토요일, 14:00~16:00
•인　　원 : 13명





더불어 꿈 희망 여행

발달장애가족과 함께하는 "더불어 꿈 희망" 여행

•장소 : 경기도 가평군 체험마을
•행사일 : 2016년 12월 2일(토)~3일(일)
•참가인원 : 35명
•체험프로그램: 목공체험, 잣박물관 견학, 숲힐링체험, 시골길 별보며 밤마실, 동물토피어리만들기
•후원기관: GKL 사회공헌재단, 가평 농촌체험마을협의회







직원교육

장애인 인권교육

•교육일시 : 2016년 10월 10일(월) 10:00~12:00
•참여인원 : 직원 9명
•장　　소 : 센터



직장인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일시 : 2016년 12월 12일(월) 10:00~12:00
•참여인원 : 직원 9명
•장　　소 : 센터



직원워크샵

•일　　시 : 2017년 11월 2일(수)
•내　　용 : 영화관람, 볼링
•참석인원 : 센터직원 9명




운영위원회

3차 회의

•회의일시: 2016년 9월 20일(화) 14:00~16:00
•참가인원: 7명
•회의내용: 2016년 3분기 사업결산 및
4분기 사업계획 검토

4차 회의

•회의일시: 2016년 11월29일(화) 10:00~12:00
•회의내용: 2016년 사업실적 검토 및
2017년 사업계획 보고



Essay
등잔 밑이 밝다?

이영덕(이하윤 엄마)



하윤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여러 기관을 찾아다닌 게 벌써 7년을 넘어간다.

좋다는 치료실이면 얼마나 멀든 어디든 다녔다.

처음엔 1,2년이면 정상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마냥 눈부신 발전은 없었다.

하윤이가 가진 자폐의 가장 큰 어려움인 사회성 부족은 책상에 앉아서 하는 학습으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았다.

그렇게 나도 하윤이도 지쳐가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우리는 서울시 발달장애 사회적응지원센터를 만나게 됐다.

먼 길을 돌아 집에서 5분 거리인 등잔 밑으로 왔다.

프로그램도 사회적응운동과 심리치료, 방과 후 활동반이 전부였다.

처음에는 별 기대감 없이 남는 시간을 채운다 생각했으나, 차츰 나의 기대를 넘어섰다.

얼음공주라는 별명처럼 항상 긴장과 불안 속에서 살던 하윤이는 차츰 밝아졌다.

사회적응운동 수업 가는 날을 기다리고, 수업 내내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수업 끝나면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어 나온다.

그렇게 하윤이는 몸을 깨운다.

하윤이의 변화를 보면서, 나도 새로 알게 되었다.

발을 깨우고, 몸을 깨우고, 손을 깨우고, 머리를 깨우는 과정 안에서 긴장감은 낮아지고, 또래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서야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엄마가 조급해 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조금씩 달라진다.
분명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한 계단 위에 올라가 있을 것을 믿는다.

2017년, 올해도 열심히 운동합시다.

Essay
함께한 시간들...

교사 손승연



"안녕? 손승연선생님이야. 너는 이름이 뭐야?"이름과 얼굴을 외우려 안간힘을 쓰던 첫 수업, 설렘도 있었지만 내가 선생님이라 불릴 자격이 있을까란 그 자리의 무게감이 더 컸던 시간이었다.

수업을 잘하고 싶단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끌고 가기 급급했던 시간들도 있었다. 아이들은 힘들고 나도 스트레스 받을 뿐이었다. 사회적응운동 3단계의 목표인 상호작용을 그렇게 외치며 선생님인 내가 상호작용을 잘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었다. 아이들은 먼저 선생님과 관계가 형성되고 친해지고 이 시간이 즐거워져야했다.
그래서 함께할 수 있는 게임과 호흡을 나누는 활동들을 하고 장난도 많이 치려고 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수업의 목표와 다른 친구의 욕구들을 조율해갔다.
점점 수업이 재밌어졌다.
내가 놓쳤던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발견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들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그 운동을 좋아하게 되고 활동에 대한 자신감 생기는 그런 변화들이 그냥 좋았다.

관계형성,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놓치고 있었다.
충분히 관계형성이 된 아이들은 느낀다. 선생님이 혼을 내도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닌 잘못한 것이 있어 혼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감기에 걸려 수업하기 힘든 날도 있었다. 활발한 친구들 반의 수업이었는데 이런 날은 조금 조용히 해주고 말도 잘 들어주면 좋을 텐데 이날도 어김없이 활발했고 시끄러웠다. 두통이 있는 상태에서 각자 큰소리로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는 아이들 속에 있으니 머리가 순간 핑 도는 거처럼 멀미가 났었다.
"얘들아, 선생님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러자 머리를 짚어주는 아이, 병원 가서 주사 맞자고 손을 붙잡는 아이, "조용히 해봐! 우리가 각자 우리말만하고 말을 안 들어서 선생님이 머리가 아픈 거야!"라고 말하는 아이 아이들의 모습에 그만 웃음이 터져버렸다. 귀여운 아이들 덕에 다시 수업할 힘을 얻는다.
내가 주는 사랑 이상을 아이들에게 받고 있는 것 같았다.

지인들을 만난자리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어느새 우리 아이들 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
여러 일화를 말하며 귀엽지 않냐고 대답까지 강요하는 나를 보며 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참 행복하다고 느낀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다. 선생님이라 불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의 마음들 잊지 않도록 나를 다잡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자리,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

노란옷의 천사 자원봉사자 이야기

고등학생봉사자 경정원

사회복지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더 도움도 되고 의지할 수 있는 선생님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친구의 추천으로 특별한 봉사활동이 있으니 같이하자고 하여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하던 봉사활동과는 달라서 처음 가는 날은 정말 떨리고 긴장 되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센터에 들어가는 순간, 처음 보는 저를 향해 따듯한 미소로 반겨 주시는 선생님들을 보며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이들도 저를 처음 보는 선생님이라며 먼저 인사를 해줘서 기분도 좋았고 그때부터 어색하지 않게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선생님이라 처음 불러줄 때 항상 선생님이라 불러 보기만 했지 들어본 적은 없어서 어색했지만,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줄 때마다 왠지 모를 책임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했던 것 보다 밝고 친구들과 사이 좋게 노는 착하고 예쁜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준비운동, 줄넘기, 공 던지기 등 수업을 하며 손을 잡아 달라고 도움을 청하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고 어려운 운동을 해내면 저 역시도 기분이 좋고 아이들이 정말 대견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런닝 머신을 15분 정도 뛰면서 힘들어도 꾹 참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놀라고, 윗몸일으키기와 줄넘기도 50개 넘게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목표만큼 끝까지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크게 배울 점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아이들을 비롯한 모든 발달장애인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도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아이들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한 웃음도 많아지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에서의 봉사활동은 선생님이 꿈인 저에게는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복지사란 직업에 관심을 갖고 꿈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좋은 추억과 의미 있는 봉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경험이 없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과 허술하고 마음을 주기 힘들었을 텐데 먼저 손 내밀어주고 좋아해준 우리 예쁜 아이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더 도움도 되고 의지할 수 있는 선생님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노란옷의 천사 자원봉사자 이야기

고등학생봉사자 박지민

아이들과 함께 나 자신도 웃고 있는 것을 새삼스레 느끼게 됩니다

반복되는 고등학교생활 속에서 방학 시즌이 다가오자 평소에는 할 수 없었던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고, 그렇게 인연이 닿은 곳이 서울시 발달장애 사회적응 지원센터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봉사활동의 행복에 대하여 무지한 여고생일 뿐이었습니다.

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하던 날, 사회적응운동반 아이들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들었던 느낌은 '아 정말 예쁜 친구들 이다' 라는 감탄사 섞인 설렘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이름이 다른 것처럼 성격도 특성도 취미도 하고 싶어 하는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 각각 다른 평범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손을 잡아주면 좋아하고 곁에서 같이 뛰어 주면 신나서 폴짝이는 영락없는 개구쟁이들도, 먼저 인사를 건네자 수줍은 듯이 고개를 푹 숙이다가 활동 파트너를 선택할 때는 저에게 다가와 포옥 안기는 귀여운 친구도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행동도 종종 하고는 하여 당황스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은 기초 체력 운동인 달리기를 하지 않겠다며 떼를 쓰거나 돌발적으로 선생님의 손등을 긁는 행위를 하거나 잠깐 한 눈을 판 사이에 넘어져 발가락이 골절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경험 탓에 잘 대해주지 못 할 때에는 센터 선생님께서 차분하게 잘못된 행동은 가르쳐 주시고, 돌발 상황에서 대처하시는 모습을 보며 보조교사로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보조교사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평범한 심리학과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심리학과를 지망했을 뿐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하여 전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의 방학을 센터에서 보내고 학교에 '발달 장애인 심리학적 접근 방법 및 적용사례' 라는 주제로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고, 재활심리치료 선생님께서 틈틈이 들려주시는 진로 코칭 덕분에 임상 심리가 아닌 제 성향과 어울리는 치료와 상담 위주의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센터에서 봉사활동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이룰 수 없었을 성과였습니다.

보조교사 봉사활동은 단순한 의미로 봉사를 하고 시간을 부여받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연락을 취해 봉사 약속을 잡은 후에 시작되는 활동입니다. 그렇다보니 다른 봉사활동과는 달랐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을 돕다 보면 하루 4시간이라는 길고도 짧은 시간을 함께하는 동안 아이들과 함께 나 자신도 웃고 있는 것을 새삼스레 느끼게 됩니다. 같이 웃고 달린 시간들이 수업 진행에 필요한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넘어 제 스스로가 봉사활동을 통하여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이 센터에서 보조교사 활동을 통해 저처럼 행복감을 느낀 후 발달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또한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노란옷의 천사 자원봉사자 이야기

고등학생봉사자 김수연

봉사를 하면서 좀 더 저의 꿈에 다가간 것 같았고 지금처럼 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저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장애인친구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그 관심으로 저는 특수교사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 장애인 친구들에 대해 더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서울시 발달장애 사회적응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 봉사하러 왔을 때는 내가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내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까? 하는 걱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저의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당황도 하고 힘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처음인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아이들과 함께 노는 시간이 힘들기보다는 즐겁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줄넘기나 탁구 달리기 같은 활동을 할 때는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대견해 보였고 아이들이 잘 할 때는 저까지 뿌듯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때에는 저도 모르게 웃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 역시 저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고 생각으로만 장애인친구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을 때 보다 직접 도와주니까 훨씬 더 보람 있다고 느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좀 더 저의 꿈에 다가간 것 같았고 지금처럼 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2016년 사업실적

사업실적

사업분류	구 분	인원(명)		대비(%)
		계 획	실 적	
사회적응지원사업	장 애	22,299	23,096	104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	장 애	1,852	2,224	120
	비장애	463	404	87
운영지원사업	비장애	72	177	246
장 애		24,151	25,320	105
비장애		535	581	109
합 계		24,686	25,901	105

이용자 현황

연 도	월 등록인원			년 이용인원		
	장 애	비장애	소 계	장 애	비장애	소 계
2016	214	4	218	25,320	581	25,901

2016년 사업계획 외 실적

사업계획 외 실적

사업명	세부프로그램명	실적(명)		비 고
		구 분	연 인원	
산학협력	특수체육 현장실습	비장애	240	1. 나사렛대학교 특수체육학과 정철준 - 120시간 실습(16.06.27.월~07.15.금) 2. 나사렛대학교 특수체육학과 박준규 - 120시간 실습(16.07.18.월~08.12.금)
기관협력	발달장애 청소년 SC농구단	장 애	594	1. 한국 스포츠 교육 희망나눔 사회적 협동조합 - 기관협력 협약식 체결 2. 농구교실 참가자 선발 테스트 - 2016.06.25.(토), 14:00~16:00 - 발달장애 청소년 48명 3. . SC 농구단 창단식 - 2016.09.10.(토), 14:00~17:00 4. SC농구단 이용인원 - 546명
홍 보	센터 사진전시회 관람인원	비장애	599	1. 제2회 꿈꾸는 아이들의 사진이야기 (발달장애 아이들 눈에 비친 세상 두 번째 이야기) - 송파도서관 다솜갤러리, 2016.07.22.(금)~29.(금) - 560명 2. 제3회 꿈꾸는 아이들의 사진이야기 - 경복궁역 서울메트로 미술관, 2016.10.29..(토)~31.(일) - 39명
공모사업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6 저소득시민지원사업	비장애	100	발달장애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플라워아트 1. 10명 정원 10회기 프로그램 진행
합 계		1,533명		

대회참가 입상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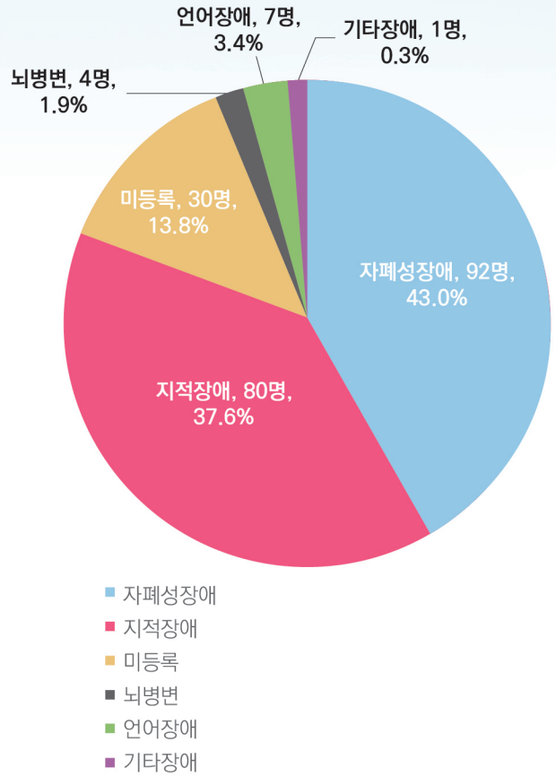
사업계획 외 실적

세부프로그램명		실적(명)		비 고
		구 분	연 인원	
사회적응 운동 5단계	축구교실 (동호회 활동)	직원	2명	제12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하계대회 5인제 축구대회 참가 - 16.08.23.(화)~25.(목) /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 - 청소년 2조 준우승 - 서울시 선수단 기수 및 대표로 입장
		장애	8명	
사회성증진반		장애	10명	1. 제3회 전국장애인 출사대회 Dream shot 참가 - 16.06.24(금) / 어린이대공원 - 드림상, 남부상, 반짝상, 복지관 30주년 특별부문 수상 2. 시상식 - 16.07.20(수) /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 3. 전시 - 16.07.09(토)~18(월) / 보라매공원, 청계천 광교 갤러리, 서울시청 시민청 시민플라자
		장애	10명	1. 부스러기사랑나눔회 글그림잔치대회 참가 - 참가자 2,736명 중 - 개인그림 부문 중고등부 더불어 함께상 1명 수상 - 단체 그림부문 상상력이 높은상 8명 수상 2. 전시회 - 16.11.18(금)~21(일) / 천호역 지하보도 오르락내리락
		장애	17명	2016 한성백제문화제 전국사진공모전 당선 - 16.11.07(월) / 은상 1명, 동상 1명, 장려상 15명

장애유형별 이용자 현황

장애유형별

전체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미등록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기타장애
100%	43.0%	37.6%	13.8%	1.9%	3.4%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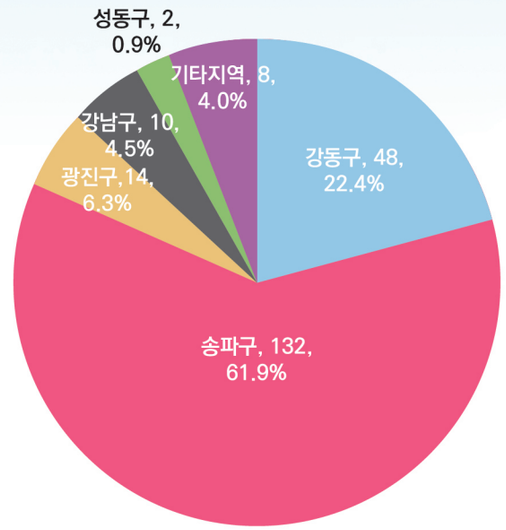


장애유형	2016
	214명
지적장애	80명
자폐성장애	92명
미등록	30명
뇌병변	4명
언어장애	7명
기타장애	1명

거주지별 이용자 현황

거주지별

전체	송파	강동	강남	광진	성동	기타
100%	61.9%	22.4%	4.5%	6.3%	0.9%	4.0%



장애유형	2016
	214명
강동구	48명
송파구	132명
광진구	14명
강남구	10명
성동구	2명
기타지역	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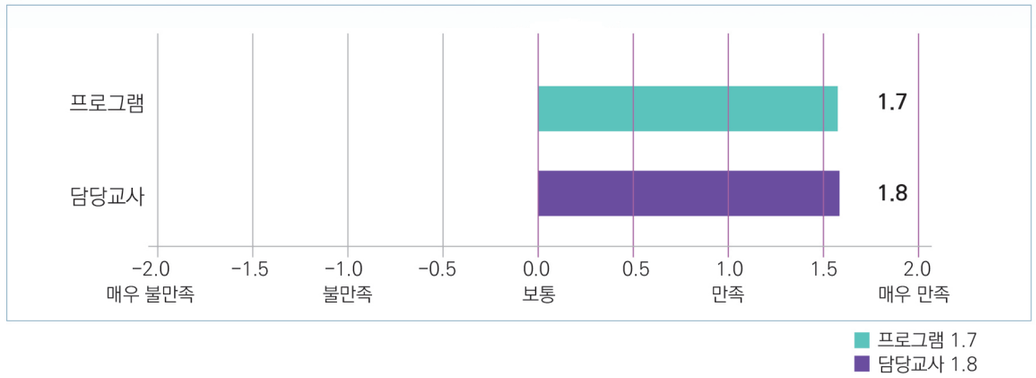
2016년 2차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센터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

영 역	만족도
프로그램	1.7점
담당교사	1.8점

매우 만족 (2점) 만족 (1점)
보통 (0점) 불만족 (-1점)
매우 불만족(-2점)

사회적응지원사업 및 지역사회네트워크협력사업 프로그램 만족도 (2.0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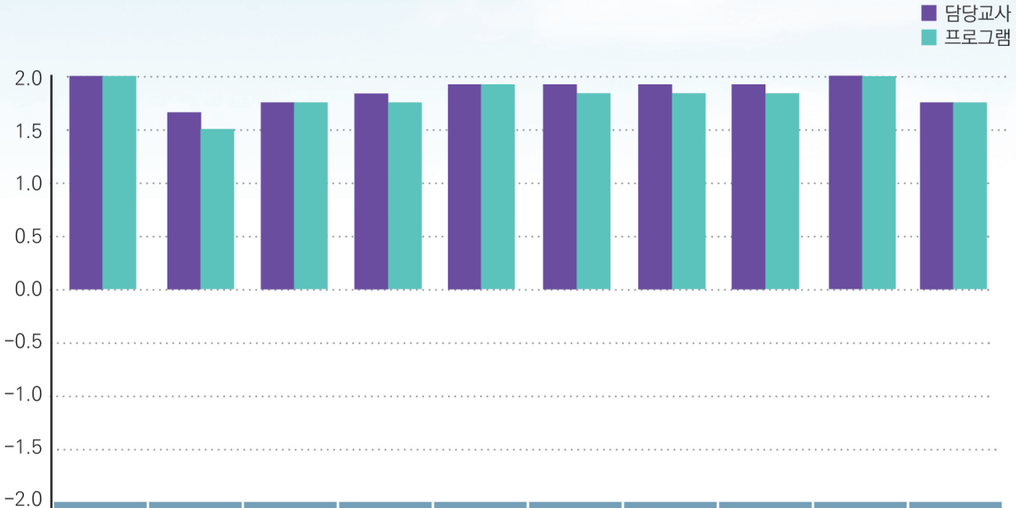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사회적응지원사업 프로그램에 대하여 **'만족한다'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2차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세부프로그램 만족도 결과

매우 만 족 (2점) 만족 (1점) 보통 (0점) 불만족 (-1점) 매우 불만족(-2점)



	사회적응 운동 0단계	사회적응 운동 1단계	사회적응 운동 2단계	사회적응 운동 3단계	사회적응 운동 4단계	사회적응 운동 5단계	사회성증 진반	재활심리 치료	기관협력	음악교실
담당교사	2.0	1.6	1.7	1.8	1.9	1.9	1.9	1.9	2.0	1.7
프로그램	2.0	1.5	1.7	1.7	1.9	1.8	1.8	1.8	2.0	1.7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하여 **'만족한다'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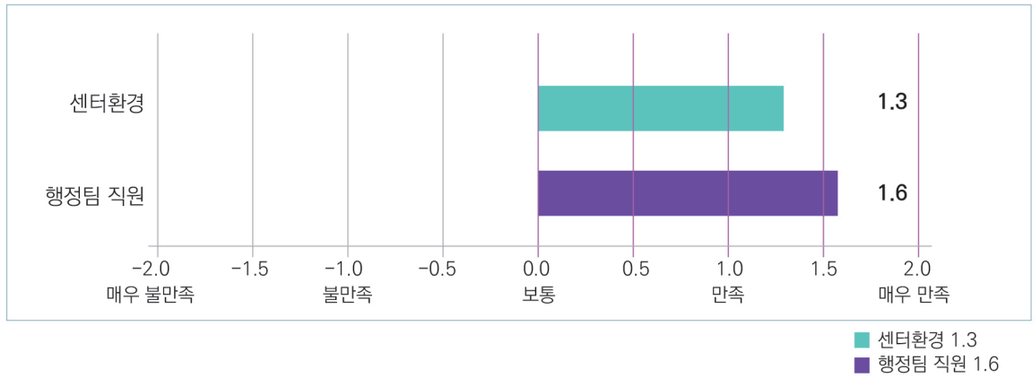
2016년 2차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센터시설/환경, 행정팀 직원 만족도 결과

영 역	만족도
센터환경	1.3점
행정팀 직원	1.6점

매우 만족 (2점) 만족 (1점)
보통 (0점) 불만족 (-1점)
매우 불만족(-2점)

센터시설/환경, 행정팀 직원 만족도 (2.0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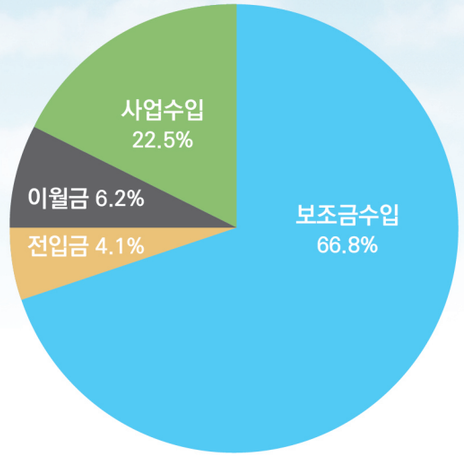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센터시설/환경, 행정팀 직원에 대하여 '만족한다'이상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운영 결산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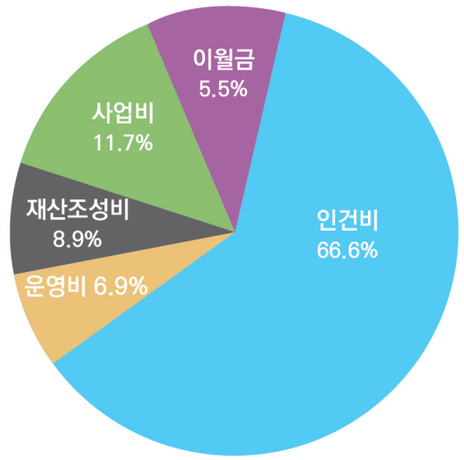
세 입

구 분	계 (단위 : 천원)	
사업수입	131,623	22.5%
보조금수입	390,652	66.8%
전입금	24,000	4.1%
후원공모사업수입	2,000	0.3%
이월금	36,060	6.2%
잡수입	145	0.0%
세입계	584,480	



세 출

구 분	계 (단위 : 천원)	
인건비	389,411	66.6%
운영비	40,095	6.9%
재산조성비	52,044	8.9%
사업비	68,670	11.7%
후원공모사업비	2,000	0.3%
잡지출	-	0.0%
반환금	14	0.0%
이월금	32,246	5.5%
세출계	584,480	



‘꿈에 그린 도서관’이 좋아요!
책이 좋아요!

꿈에 그린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을 이용 시 에피소드나, 책을 읽고 느낀 점등 도서관과 관련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센터 친구들이 도서관에 놀러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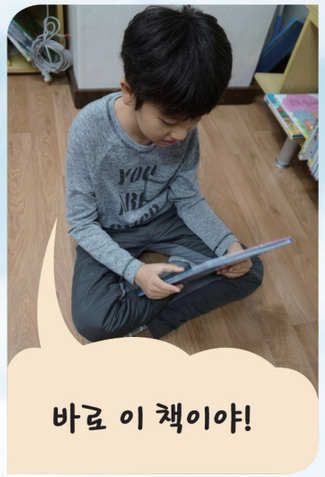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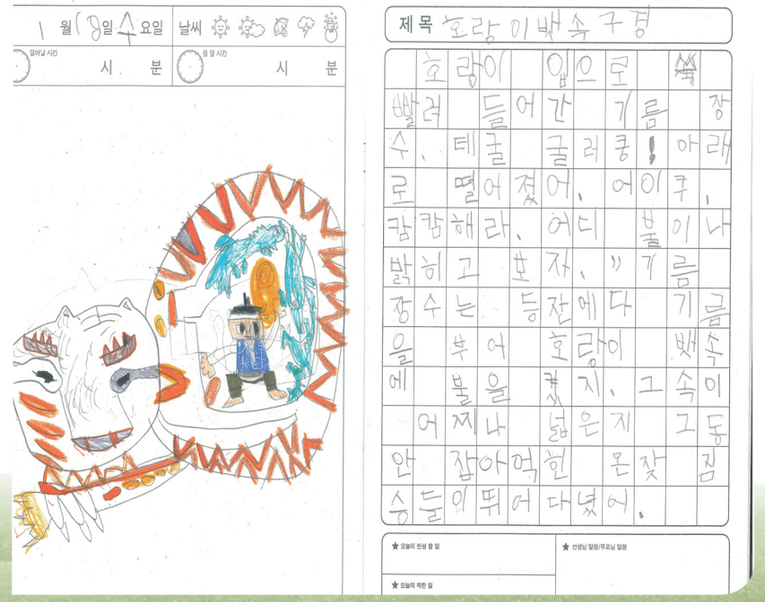
건호의 도서일기!













장애인 친구 이해하기

지적 장애란?

18세 이전에 지능지수가 70이하로 지적기능과 관련된 적응행동 기술에 결함이 있음.

* 적응기술영역 :
  의사소통, 자기관리, 가정생활, 사회성기술, 지역사회활동, 자기지시, 건강과 안전,
  기능적 교과학습, 여가선용, 직업기술

행동특성

인지	· 추상적 사고가 어렵고 구체적 단서를 제공해야 사고가 가능 · 인과관계 이해 어려움 · 단기기억능력, 선택적 주의집중 및 주의 유지 어려움	·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시간적 순서로 나열하기 어려움 · 학습부진
언어	· 단순한 의사소통 가능 · 표현 언어와 수용언어 능력 비슷한 수준	· 언어적 의사소통 보다 비언어적(모델링, 손짓 등) 의사소통을 더 선호함
사회성	· 융통성이 부족 · 자기중심적 사고로 사회적 규범 이해 어려움	· 부적절한 방식으로 주의의 관심을 끔 · 단순 놀이 가능하나 복잡한 규칙이 있는 게임은 어려워 함

자폐성장애란?

- 만 3세 이전에 발병하고,
  ①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여
  ② 의사소통 어려움
  ③ 관심이나 활동이 제한적이고 반복적이며 상동 행동이 나타남

행동특성

인지	· 광고나 동요 등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등 기억력이 뛰어난 경우도 있으나, 상황에 부적합하거나 무의미하게 사용 · 주변 환경에 관심이 없어 주의집중이 어렵고 주의가 산만
언어	· 무의미하거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욕구를 표현하지 못함 · 언어 혹은 비언어적(몸짓, 손짓, 표정 등) 의사소통 어려움 · 남이 하는 말을 무의미하게 그대로 따라함 · 억양이 단조롭고 비정상적이며 고음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음
사회성	· 타인이나 환경에 관심 없음 · 눈 맞춤 어려움 · 스킨십을 싫어하거나 외면함 · 혼자만의 시간을 즐김 · 틱증상이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등 타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함 · 빙글빙글 돌기, 손가락 쳐다보기, 장난감 바퀴만을 계속 돌리기, 책장 넘기기, 까치발 등 이상동행동을 보임 · 환경변화에 예민하여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자신만의 규칙 있음

서로 다름에 차별이 아닌 차이로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1명의 장애인을 잘 재활시키는 것 만큼
10명의 비장애인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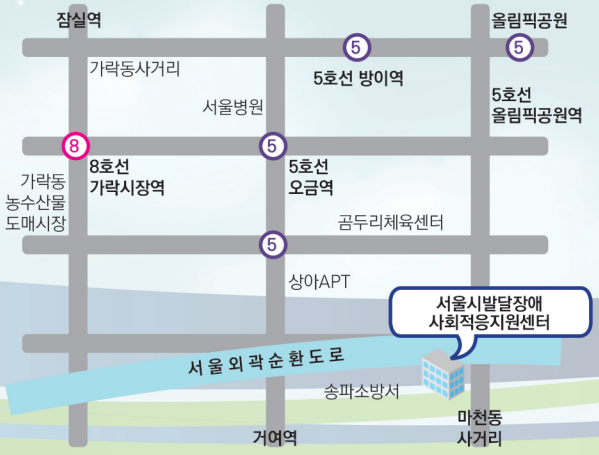
글: 양동훈



발달장애 친구들의 자립을 통한 **행복한 가정만들기!**

서울시 발달장애 사회적응 지원센터가 만들어 갑니다.

오시는 길



5호선 오금역 6번 출구 3314, 3315번 버스이용 → 마천2동 윤진빌딩 하차
개롱역 3번 출구 3315번 버스 이용 → 마천2동 윤진빌딩 하차

2호선 잠실역 1번 출구 3315번 버스 이용 → 마천2동 윤진빌딩 하차

8호선 가락시장역 2번 출구 3317번 버스이용 → 마천2동 윤진빌딩 하차

05737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226 TEL:02-448-3302 FAX:02-448-6022

Copyright. Designdomino.com co.,ltd. All rights reserved.